

구윤철 “26조 추경 빠르게 집행… 2% 성장률 지켜낼 것”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 부총리, 한국 경제회복 강조
2차 추경에는 신중한 입장 보여
“금리 문제, 한은이 판단할 영역”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올해 2.0% 성장률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율·물가·성장의 핵심 변수는 중동 사태 안정 여부라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정책조합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구 부총리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한국은행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중동 상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성장률을 전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당초 약속한 2.0%는 달성하겠다고”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투자은행(IB) 전망 중에는 2%를 웃도는 수준도 있는 만큼 한국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유가와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은 입장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고 성장세는 예상보다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리 문제는 금통위에서 여러 경제 상황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잘할 것”이라며 “부총재가 금통위 멤버인 만큼 그런 분위기를 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과 건설투자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재정 대응과 관계기관 협력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

고 있기 때문에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예산처 장관과 촘촘하게 정책공조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와의 면담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정책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주식 시장도 전쟁 이전보다 좋아지는 등 시장에서 정책 대응을 평가해주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1차 추경을 집행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을 빠르게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본예산도 729조~730조원 가까이 되는 만큼 그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에 대해서는 특정 수준에 대한 직접 평가는 피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련해 “환율 수준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중동 사태가 환율과 물가, 성장의 핵심 변수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한국 경제의 환율이나 물가든 성장이든 중동 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안정화되느냐가 가장 키포인트”라며 “그과정에서 변동성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 사태가 거의 3개월 된 부분”이라며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상황이 좋고 세수 상황도 좋지만, 석유 가격 상승에 따른 경유·휘발유 가격과 과열 물가 부담은 예의주시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류가격 관리와 관련해서는 중동 사태의 전제가 중요하다고 봤다. 구 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 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달라지느냐”라며 “가장 좋은 정책은 중동 전쟁이 빨리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마르칸트(우즈베키스탄)=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쿠팡, 1분기 적자전환… 영업손실 3545억

개인정보 유출사고 보상 등 영향
김범석 의장 “2분기부터 실적반등”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전경. /뉴스시스

쿠팡Inc가 올해 1분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여파로 4년여 만에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다만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대규모 보상 비용과 일시적인 물류 비효율이 반영된 결과라며 고객 복귀와 인공지능(AI) 투자를 바탕으로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6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12조 4597억 원(85억 400만 달러)을 기록했다. 반면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어 영업손실 3545억 원(2억 4200만 달러)을 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225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수치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손실이다. 분기 적자 기록 역시 2024년 2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처음이다.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대규모 고객 보상과 물류망 운영의 비효율이 꼽힌다.

김범석 의장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실제 주문량이 예측치에 못 미치면서 선제적으로 확보해 둔 물류 인프라가 유휴 상태가 되어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수요가 다시 안정적인 궤도로 회복되면 이러한 인프라 비효율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 위기를 기점으로 물류 자동화와 상품군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당수 상품이 아직 로켓배송으로 제공

되지 않고 있는데 직매입 카탈로그와 로켓그로스(FLC)의 결합이 이러한 격차를 크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 전반에 걸친 AI 도입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 절감을 실현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마진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성장 사업 부문에서는 대만 로켓배송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대만에서는 자체 라스트마일 배송 네트워크가 대부분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으며 고객 유지율 또한 한국 사업 초기와 유사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변경 지정한 것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김 의장은 “최근 한국에서 지정된 것을 알고 있으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관할 구역에서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규제 기관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李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

국민의힘 ‘주거 희망의 종말’ 반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주거 희망의 종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되찾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했던 기사는 최근 발표된 KB부동산 전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은 불과 석 달 만에

달라져 있었다.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1월에는 대다수가 집값 상승을 예상했지만, 4월에는 하락을 전망한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였다.

그러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실제 현장은 거래 절벽과 매물 잠금, 임대차 왜곡이라는 삼중고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며 “일부 지표의 하락을 ‘부동산 정상화’로 포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의 시장은 기대가 꺾인 것이 아니라, 생존의 희망이 꺾인 상태”라며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이 아니라 ‘주거 희망의 종말’”이라고 주장했다.

/서예진 기자 syj@



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공개

대한석탄공사 ‘매우미흡’ 5등급 판정

대한석탄공사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부문에서 ‘최저’에 해당하는 5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IBK기업은행과 LH, 한국동서발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4등급에 그쳤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

사결과’를 공개했다. 관련 평가는 지난 달 30일 허창 재정부 제2 차관이 주재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판정은 5개 등급으로 1등급은 매우 양호, 2등급은 양호,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미흡, 5등급은 매우미흡이다.

총 104개 기관 대상의 심사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최하 등급은 지난 2022년도분 평가 때의

새민금개발공사 이후 처음이다. ‘미흡’인 4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5곳이었다.

재정부는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도 의결했다. 예금보험공사 등 18곳이 3년 연속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중=김연세 기자 kys@



VKOSPI 60 돌파… 단기 급등 우려 시선도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 1만 ‘꿈의 7000피’…서 계속

외국인 주식 매수세에 외환시장에서 원화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에 원화 환율은 하락세(원화 가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간 거래 종가는 7.7원 하락한 1455.1원이다.

증권가는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코스피 연간 전망치를 6000~86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목표치 상단 8600은 국내외 증권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노무라증권 등 글로벌 IB들도 최근 코스피 12개월 전망치를 8000~8500선으로 상향했다. 장기적으로 ‘1만피(코스피 1만)’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기간에 오른 ‘7천피’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미국 투자자들이 메모리 가격 상승세 둔화, 영업마진 상단 근접 인식, 소비자 IT 기기(스마트폰, PC 등)의 수요 감소 등을 우려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7.52% 뚫 60.07를 찍었다. 시장이 기업가치보다 가격변동의 움직임을 쫓는 ‘투기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때 공포지수는 커진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